

국힘 “전국 55곳 박빙”… 민주 “정권심판론 극대화”

한동훈 “지면 개헌선 무너져”
“상황 절박” 지지층 결집 호소

이재명 “국민 무서움 보여야”
불통정부·전파낭비 집중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담화를 고리로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국 55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충북 충주 지원유세에서 “우리(국민의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 그 중 수도권이 26곳”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금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이라며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반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 저지선마저 뚫리면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룬 대한민국의 지금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나서서 범죄자들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한 위원장은 “이제 곧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여러분 모두 투표장으로 가달라”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주시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며 표심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보니까 역시 반드시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며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인 것을,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할 것 같

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화를 보니 (윤 정권이)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4월 10일에 엄정하게 신상필벌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국민 피로감이 누적되는 틈새를 파고들면서 ‘불통정부’, ‘전파낭비’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날 선대위 본부장

단 회의에서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절망적”이라며 “50분 동안 전 국민은 TV 앞에서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 2000명 숫자에 대한 집착을 확인했는데, 막상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뜻은 ‘2000명’이 아니었다며 국민들에게 재해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51분 전파낭비 담화에 환자 고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환자 단체의 질타”라며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증원인지, 왜 2000명이란 숫자에 집착하는지 대통령과 용산은 이것부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대통령 담화는 소통의 실패였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언제까지 방기할 셈이냐”고 직격했다.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에 대한 유연한 정책을 진정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의대증원 수치와 조정 방안까지 안전으로 포함된 논의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토론회 불참’ 조인철 민주 서구갑 후보에 과태료

선관위가 건강상 이유로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에 불참한 조인철(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3일 광주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선관위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 후보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 후보는 “피로가 누적돼 몸에서 열이 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강상 이유를 불참 사유로 제시했으나, 위원회



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선거법은 선거방송 토론회 불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나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할 수 없을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조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선관위 주관 방송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1시간30여분

전에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광주지역 한 병원에 입원해 지난 1일까지 4일 간 치료를 받았다.

조 후보의 불참으로 선거방송토론회는 국민의힘 하현식 후보 1명만 참석해 상호토론이 무산되고 생방송 시간도 1시간10분 지연됐으며, 방식도 토론이 아닌 진행자와 대담 형식으로 바뀌는 등 파행을 빚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조 후보는 지난 1일 퇴원 후 “피로가 누적돼 병원에 입원했다. 이유 불문하고 선거방송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할 말이 없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은지 기자

선관위 “오늘부터 총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금지기간 전 결과 인용은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

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4·10총선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3일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원), 경고등 76건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